

국가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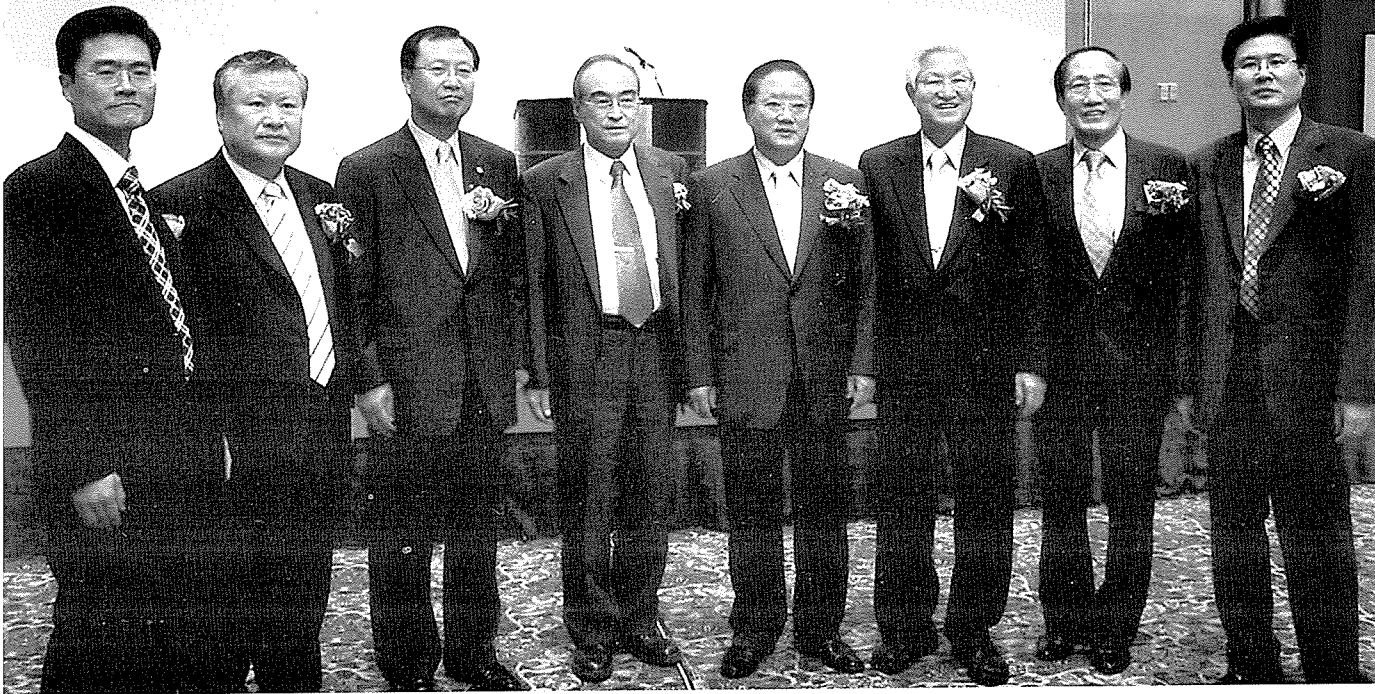
일시 : 2006년 7월 6일(목) 14:00~18:00

장소 :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

주최 : 지식재산포럼

주관 : 한국산업기술재단

후원 :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특허청, 문화일보



지식재산포럼(공동대표 이상희, 김명신)이 지난 7월 6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산업자원부와 공동 주최, 한국산업기술재단 주관, 과학기술부·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특허청·문화일보 공동 후원으로 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 주제발표는 일본정부기구인 지적재산 전략본부의 위원인 동경대학교 법대 나까야마 노부히로 교수, 주식회사 케이티 정일형 부장, 서울대학교 홍국선 교수, 지식재산포럼 공동대표 김명신 대표 등 4명이 하였으며, 한양대학교 법대 윤선희 교수가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서울대 공대 박용태 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황희 박사, 대한변호사협회 도두형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김성기 변리사,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팀 이관섭 팀장, 특허청 산업재산정책팀 이영대 팀장이 각각 토론에 참가하였다.

지식재산포럼은 “이제는 지식재산이다. 지식재산의 창조와 보호가 인재를 기르는 지름길이다. 지식재산의 힘은 문화·예술과 과학·기술의 결합에서 나온다. 지식재산만이 미래의 살 길이다. 지식재산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강신호(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명신(전 아세아변리사협회 회장), 김승유(하나금융그룹 회장), 김용구(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김유승(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김재철(전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중수(전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철수(전 상공자원부 장관), 김현구(한국행정학회 회장), 박용성(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지은(여자프로골퍼), 보아(가수), 송상현(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송자(전 교육부 장관), 안국정(주식회사 SBS 사장), 안성기(영화배우), 양승두(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어윤대(고려대학교 총장), 유삼렬(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이구택(한국발

지식재산포럼「지식재산정책 대토론회」 개최

지식재산기본법안 국회제출

명진홍회 회장), 이상희(전 과학기술처 장관), 이성림(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이세중(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어령(전 문화부 장관), 이원규(원음방송 사장), 이정훈(전 한국지적재산권학회 회장), 이철호(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태섭(전 과학기술처 장관), 임권택(영화감독), 장대환(매일경제신문사 회장), 정명금(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정창영(연세대학교 총장), 정해주(전 산업자원부 장관), 조수미(성악가), 조현정(벤처기업협회 회장), 채영복(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최공웅(전 특허법원 원장, 변호사), 최문순(주식회사 문화방송 사장), 최현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황병기(국악 작곡가)등 40인의 발기인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3시 중구 태평로 소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모여 발기인대회 겸 창립총회를 가진 이래, 10월 10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지식재산기본법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벤처기업협회,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후원으로 가진 바 있다.

또한, 지식재산포럼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2시 프레스센터에서 SBS와 중앙일보 후원으로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지식재산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는 바, 이때의 주제는 일본총리의 직속기구인 지적재산전략추진사무국장 아라이 히사미쓰(전 특허청장)씨가 “일본에 있어서 지적재산전략본부의 역할과 경제발전”을,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지식기술의 새로운 개념과 미래전략”을

각각 발표하였다. 지식재산포럼은 싱가포르의 이광요 전 수상도 초청하였으나, 본인의 스케줄 때문에 부득이 내한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식재산포럼에서는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결합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그동안 꾸준히 주장하여 온 내용들이 거의 반영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드디어 지난 7월 7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대통령을 장으로 하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는 정부기구를 신설하여 모든 지식재산에 관한 각 부처의 정책을 조정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재산전략추진단”이라는 사무국도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포럼은 이 법안이 금년 가을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진경제도약을 위한 지식재산전략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한, 지식재산포럼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각 부처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 사무처를 감독관청으로 하는 법인설립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